

<예수빌리지 구역1>
유년·초등부 1과

제 목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배울 말씀	창세기 1장 1절 - 2장 3절
읽을 말씀	창세기 1장 1 - 5절
외울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히 11:3).
메인 아이디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포인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 표시에서 클릭하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대답을 듣고) 바로 스페인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에요. 이 성당은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이 설계하고 만들기 시작하여 ‘가우디 성당’이라고도 불려요. 아주 멋지고 아름다워서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이 성당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대답을 듣는다.)

먼저, 가우디가 오랜 시간 ‘어떻게 하면 멋진 성당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해서 설계를 만들었어요.

설계를 만든 후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 좋은 재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공사에 참여할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 사람들은 가우디의 지시에 따라, 하나하나 벽돌을 쌓고 멋진 조각도 만들었지요. 이렇게 1883년부터 시작하여 아주 오래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공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성당은 언제 완성되었을까요? (대답을 듣고) 정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예요.



이 성당은 공사를 시작한 지 130년이 넘는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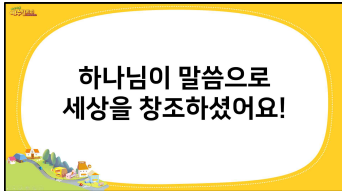
130년 동안 많은 비용이 들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사에 참여했어요. 아름다운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멋진 가우디 성당을 완성

해가고 있어요.

이렇게 멋진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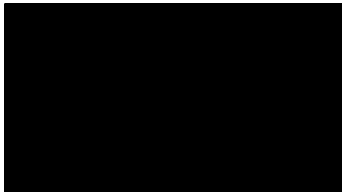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는지 알고 있나요? (대답을 듣는다.)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성당을 짓는 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저 높은 하늘과 넓은 바다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처음 이 세상은 아주 깜깜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빛도 없고 숨을 쉬는 어떤 것도 살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땅과 아주 깊은 물만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 세상에 계셨던 유일하신 분, 그분은 누구일까요? (대답을 듣고)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질서 없이 흩어져 있고 어둠뿐이던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 말씀 “빛이 있으라!”(창 1:3)



▶ 빛)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빛’이 생겨났어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이 세상에 빛이 생겨난 거예요. 우와- 이 세상에 그 누가 말씀으로 빛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답을 듣고)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이었어요.



**물 가운데
하늘아 생겨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 말씀 “물 가운데 하늘아 생겨라!”(창 1:6)



▶ 하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나뉘어졌고 그 사이에 ‘하늘’이 생겼어요. 이 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둘째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바로 ‘땅’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말씀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그리고 땅아! 드러나라!”(창 1:9)



▶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최악-, 모든 물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모여 바닥이 보이자, 그곳을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땅이 생겼으니, 이제 많은 나무와 풀과 채소들이 자랄 수 있겠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많은 나무와 풀과 채소들이 땅에서 자라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지요. 이 날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셋째 날이었어요.

이렇게 하늘과 바다와 땅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또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대답을 듣고) 하나님은 만드신 하늘과 바다와 땅을 가득 채우셨어요. 여러분, ‘하늘’과 ‘우주’에 무엇이 떠 있나요? (대답을 듣고) 맞아요. 온 세상을 비추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 말풍선 “하늘(우주)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 빛을 내고 땅을 비추어라!”(창 1:15)



▶ 해,달,별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답을 듣고)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번에도 말씀하신 그대로, 저 하늘에 커다란 해와 달과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생겨났어요. 이 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넷째 날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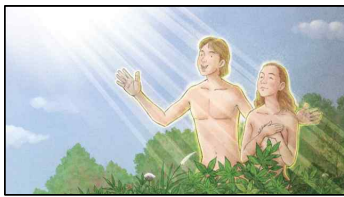


▶ 하늘의 동물 그리고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많은 생물을 만드셨어요.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생물이 무엇일까요? (대답을 듣고) 맞아요. 바로, 멋진 새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다양한 크기와 색을 가진 많은 새들이 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멋진 새들로 하늘을 가득 채우셨어요.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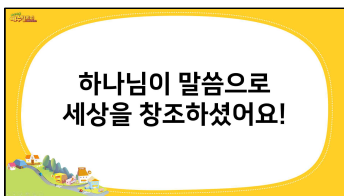


(▶ **바다의 동물**) 하나님은 ‘바다’에도 많은 생물을 만드셨어요. 저 넓은 바다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요? (대답을 듣고) 맞아요.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크기와 색과 모양을 가진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멋진 물고기들로 바다를 가득 채우신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섯째 날이었어요.

(▶ **땅의 동물**) 그렇다면 ‘땅’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대답을 듣고) 맞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네 발로 다니는 동물, 두 발로 다니는 동물,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들, 이렇게 아주 다양한 동물들로 땅을 가득 채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대답을 듣고)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어요. 이 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대답을 듣고) 맞아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실 수 있었을까요? (대답을 듣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질서 없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놀라운 분이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요!

